

“GIVE & TAKE’로 앱 생태계 구축”

광주앱개발센터 입주

‘1인 창업자’ 정원학씨

“지난 10년 동안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1인 창업자 정원학(35)씨.

정씨는 지난 2001년부터 IT개발 분야에 종사해오면서 터득한 IT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이 국내에 정식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08년부터 앱 개발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스마트폰 앱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준비해왔다. 하지만 쉽지않은 여정이었다.

디자인·개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형성
사람과 사람간 재능 주고받는 서비스 개발

그는 “처음에는 기술력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들고 수십 곳을 찾아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수차례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디자인, 개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서로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다.

그가 이렇게 만들어 최근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GIVE & TAKE’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웹과 앱의 연동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거래를 중매해준다. 특히 기존의 중개사이트들이 금전을 바탕으로 한 물건 거래 사이트였다면, 일명 ‘한국형 품앗이’로 불리는 ‘GIVE & TAKE’는 사람들의 재능



을 기반으로 한다.

정씨는 “본인이 욕아에는 자신이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서 욕아 기술을 가진 사람과 교육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연계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서로가 재능을 주고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서비스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해 더욱 넓은 서비스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단발적인 콘텐츠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그의 경영철학 때문이다.

정씨는 “앞으로 서비스 안에서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한국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상정보 유출되면 어쩌나...’ ‘답장도 지귀...’

SNS 이용 직장인 3명중 1명 ‘스트레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은 여러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SNS를 이용하는 직장인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SNS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본 적이 있는’는 질문에 34.9%가 “있다”고 대답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복수응답)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가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방 메시지에 꼬박꼬박 답해야 해서’(33.3%),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25.3%), ‘틈날 때마다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21.8%) 등의 답변이 나왔다.

‘나에 대한 악플 때문에’(8%), ‘접속해 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서’(6.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의 65.5%는 스트레스 탓에 사용하던 SNS를 방치하거나 폐쇄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51.7%는 다른 사용자와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SNS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중인 SNS의 개수가 ‘2개’라는 대답이 47.4%로 절반 가까이 됐고 ‘3개 이상’이 29.3%, ‘1개’가 23.3%였다. /연합뉴스

美·英 연구진 “지각활동 원인은 석영”

이동식 지진관측 자료로 확인

지진 활동과 산맥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는 혁명적인 ‘관구조론’이 1967년 처음 제기돼 정설로 자리잡은 데 이어 최근 미국 과학자들이 이런 지각활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석영이라는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이언스 데일리가 16일 보도했다.

관구조 개념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1967년 캐나다의 지구물리학자 존 티조 윌슨(1908~1993)에 의해서였다. ‘윌슨의 관구조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네이처지에 실린 그의 연구 논문은 북미 대륙 동부의 해안지대를 따라 해양 분지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윌슨은 이런 현상이 지구 탄생 이래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최근엔 거대한 초대륙 관계아가 갈라져 오늘날의 일곱 대륙

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지진과 산맥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의 기초가 됐다.

그런데 최근 미국 유타대학과 영국 런던대 연구진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는 “이 모든 과정이 석영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깊은 지각의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에 따르면 지구 표면이 갈라지고 주름 잡히고 접히고 펴져 산맥과 들관과 계곡을 형성하는 일련의 사건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바로 석영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 중서부 대평원에서 출발해 로키 산맥을 향해 서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대평원이 어째서 특정 지점에서 가파른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지 궁극할 것”이라며 석영 락이 이루어진 이런 지형이 산맥 형성 과정을 시작하는 촉매 역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산맥과 균열지대가 오랜 세월이 걸쳐 같은 위치에서 계속 형성됐음을 확인했다면서 “바위들이 보다 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고온과 물, 다량의 석영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요인들을 측정할 도구가 없었지만 2002년 이후 미국 서부 지역 전역에 걸쳐 설치된 미국과학재단(NSF)의 이동식 지진 관측소망 자료를 이용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런 시설들을 통해 대륙의 암석 특성을 원격 탐지할 수 있었고 이런 자료를 중력과 표면의 열 흐름 등 지구물리학적 측정 자료와 접단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온도, 물, 지각에 함유된 석영 성분의 효과를 각각 측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KT

“아이폰4, 이젠 네트워크 전쟁”

KT

본격 출시 ‘SKT’ 무선망 주력

‘KT’ 와이파이·와이브로 유리

지난 16일 SK텔레콤이 아이폰4를 정식 출시하면서 KT와의 아이폰 대결 ‘본선’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4의 사후서비스(AS) 개선, 예약가입자 확보 등을 통해 기선제압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아이폰4에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관건이 통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넘어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3G(WCDMA) 무선 데이터망에 주력하는 반면 KT는 유선망을 기반으로 하는 와이파이와 와이브로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회사는 음성 채널과 분리된 데이터 전용 주파수를 운영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용량이 2배로 증가된 ‘6섹터 기지국’을 확대하는 등 3G망 품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또 좁은 장소에 집중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 ‘팬토셀’이란 초소형 기지국을 도입, 연내 1만곳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와이파이를 작년보다 2.6배 많은 6만2000곳으로 늘리고, 차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오는 7월 도입할 계획이다.



16일 SK텔레콤이 아이폰4를 정식 출시한 가운데 SK텔레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설명을 듣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반면 KT는 “1년4개월간 아이폰에 최적화된 망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WCDMA·와이파이·와이브로 등 3W를 종합적으로 갖춰 유리하다”고 맞섰다.

KT는 압도적인 와이파이인 수를 자랑한다. 전국 4만7500여개의 와이파이존을 연말까지 10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보다 최대 8배 빠른 프리미엄 와이파이도 구축하고 있다.

또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82개시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 데 이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와이파이를 와이파이로 전환해주는 ‘퍼블릭 에그(이동식 와이파이)’를 설

치,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KT는 “와이브로는 3G보다 약 3배 빠르면서 요금은 최대 50% 저렴하다”며 “아이폰 케이스형 에그를 출시해 아이폰 사용자가 편리하게 와이브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에는 SK텔레콤이 불량 아이폰4 교환기간을 ‘구입 당일’에서 ‘구입 후 7일’로 연장하고 AS센터를 늘리는 등 AS 개선을 발표하자 KT도 교환기간을 ‘구입 후 14일’로 확장하는 등 AS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연합뉴스

스타박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박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박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